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 22절>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특별새벽기도회 3번째 시간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유월절의 유래)**은 쫓겨나듯이,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서둘러야했던지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나와야만 했습니다(무교절의 유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날개로 품듯 보호하시고 감싸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 분주하여 아무것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당신의 생각대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기초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면서

1.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데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면 가장 가까운데도,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가짜이고 허망한 우상임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땅을 피해가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집트)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는데, 피해가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염려하셨던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그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목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홍해라는 분명한 구원의 순간을 건너지/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끌려가는 수준, 억지로 함께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한 순종, 정성을 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2.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인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기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기둥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방향)이 홍해 앞이라는 것이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였다는 것입니다.

효율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인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하게 될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이끌고 계시는 중이었습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200만 명이든,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말씀**입니다.

출애굽 할 때의 구름 역할(길잡이)을 21세기에는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기쁨의 순종을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야겠습니다.

<기도제목>

1.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2.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읽으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